

함경아:  
유령의  
발자국

Kyungah Ham:  
Phantom  
Footsteps

*Kyungah Ham, What you see is the unseen /  
Chandeliers for Five Cities 02-01, North Korean hand  
embroidery, silk threads on cotton, middle man,  
anxiety, censorship, wooden frame, approx. 2400hrs/  
4persons, 265[h] × 357cm, 2013–2014*

작업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가는 현관문 앞에 떨어진 뼈라를 보고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클릭 한 번이면 자신이 원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쪽과 철저하게 정보가 차단된 저쪽은 자수라는 매체를 통해 소통한다. 이쪽에서 야호라고 외치면 그 소리가 돌아오기까지 1년이 더 걸린다는 함경아 작가의 고백에서 이번 개인전 <유령의 발자국>이 만들어지는 데 6년이 걸린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긴 기다림 가운데 작가의 상상 속 유령은 실체를 가지고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인터뷰 우현정 | 자료제공 국제갤러리

**우현정(우): 국제갤러리 2관 'SMS 시리즈'와 3관에 전시된 '당신이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섯 개의 도시를 위한 상들리에' 구성이 서로 대비되면서 전시 주제가 명확하게 부각되는 효과를 얻었다. 전시 제목 <유령의 발자국>과 연결해 이 부분을 설명해달라.**

함경아(함): 유령과 발자국은 작업하는 과정 중 어느 순간에 이르러 정해졌다. 유령이 뭐냐고 했을 때 발이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다. 3관에 있는 '당신이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섯 개의 도시를 위한 상들리에'는 검은색 배경 한 가운데 상들리에가 놓이는 전통적 구도를 취한다. 상들리에에는 거대 담론, 무너진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삶 또는 세계사적인 담론의 와해가 환영이거나 착각이었을 수도 있음을 말하기도 한다. 반면 'SMS 시리즈'는 병렬과 해체를 통해 중심이 와해되는 전면 회화처럼 보인다. 내가 보내는 메시지가 도착 지점에서 발화되어 걸어나가는 것도 유령이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상황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념이 아니라 자본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쪽

사람들과 나 사이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서로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도 상상하고 나도 상상하는 서로 다른 지점이나 환상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현실적인 제한 상황 속에서도 상상력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은 예술가의 강박이다. 어쩌면 그것이 유령이 되어 걸어나가는 건지도 모르겠다.

**우: 실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공간적 거리와 이데올로기를 넘어 소통을 시도하는 주제 의식이 잘 전달되려면 작품 제작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 상들리에 작업은 오래 걸린다. 여러 개를 동시에 진행하며 변수가 많다 보니 작품의 질이 떨어지기도 한다. 당신이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섯 개의 도시를 위한 상들리에 는 이미지 간 연결이 잘 안 된다. 여러 작업자가 수를 놓았다는 증거가 되지만 어긋난 부분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작가로서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둔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다. 실을 가져가 팔아서 제대로 해오지 않을 때 간혹 수정을 맡기는 정도이다. 초기에 작업을 보냈는데 원본을 분실해서 A4의 작은 이미지를 확대해서 작업한 결과물이 온 적이 있었다. '미안합니다'가 '미안합니다'로 오타가 나기도 했지만, 부산비엔날레에 전시했었다. 이런 작품들도 강렬하고 현실을 드러내기에 충분하지만, 미술관에서는 소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걸 보면 아쉽다. 관객의 시각이 고도로 발달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자격이 갖춰져야 작품으로서 인정받는다. 작품이 아닌 상태를 아무리 전시해봤자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대안공간에서는 수용될 수 있어도 전시공간에 따라 이런 조건은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우: 검열 때문에 작업이 분실되면 다시 작업하는가? 작업 과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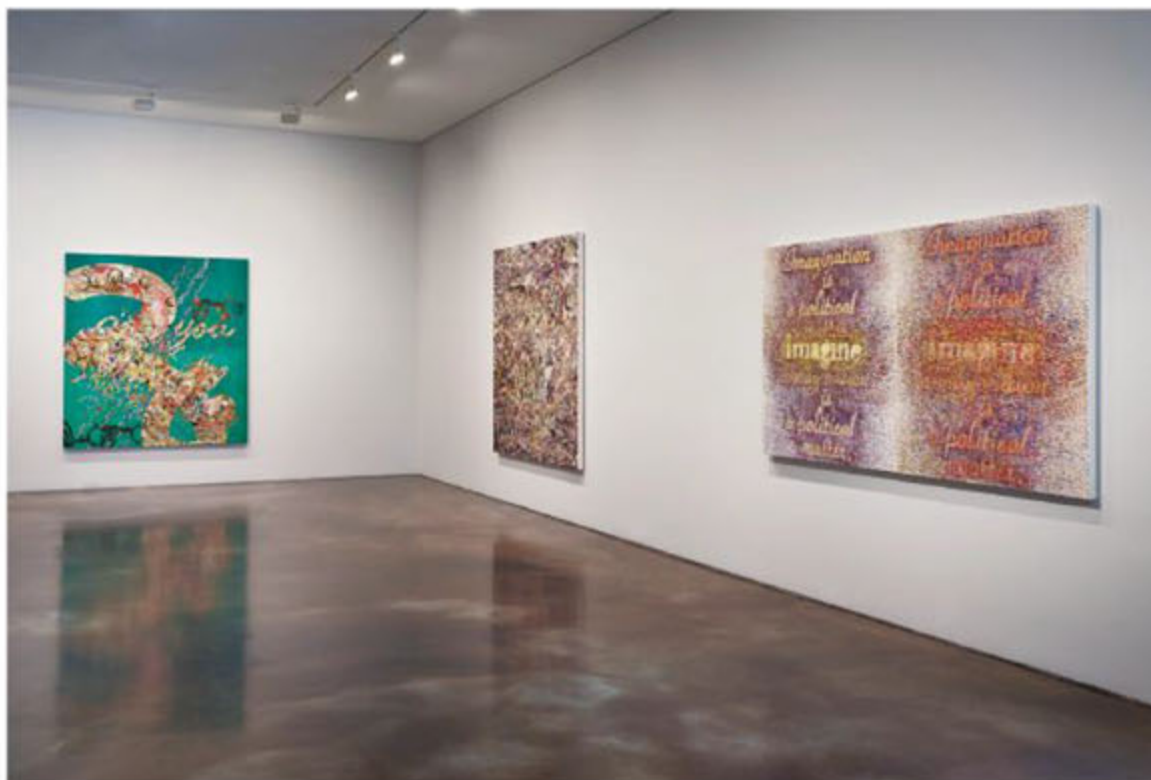
**대한 별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하다.**

함: 하지 않는다. 때에 따라서 해골 같은 이미지는 돌아오기도 하고 오지 않은 적도 있다. 제각각이다. 간혹 텍스트 작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업자들을 생각해서 텍스트를 줄이고 카모플라주를 이용해 추상적인 이미지를 만든다. '처음에는 암흑이예요'는 문제가 많았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계속 요구해서 하게 되었다. 나중에 작품이 나올 때도 신의주에서 검열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고. 이런 과정 자체가 작업의 재료가 된다. 캡션에서 작업 과정을 일부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작품만 봐서는 다 알 수 없다. 작가가 친절한 방식으로 풀어서 비디오 작업과 같이 다른 매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보는 사람마다 해석의 층위가 다르므로 어디까지 설명할 것인지는 작가의 선택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이 작업의 과정에 흥미를 느끼고 파헤치고 싶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위험을 느낀다. 과정보다는 이런 작업에 대해 시각적 판단 능력이 어떻게 변모하고 예술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주목해 주면 좋겠다.

**우: 지난 간담회에서 "자수회화 시리즈는 외연과 내포가 다름을 보여주고, 이면이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중의적인 힘이 강조된다. 시대에 따라 작품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첩된 의미와 해석 사이에서 작가로서 경계하는 접근법은 무엇인가?**

함: 중의적인 해석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가 하나가 되는 지점을 찾아 그것을 함축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든다. 거기에는 외연과 내포가 있고 또 다른 함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관객의 상상으로 생성된다. 그들에게 '유령의 발자국'이 무엇이나고 물어보고 싶는데, 그들의 답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작품을 보지 않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어떤 편견에 의해서 판단해버리면 것은 위험하다. 예술은 독창적이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낯선

Photo by Keith Park



Kyungah Ham, Installation View K2



Kyungah Ham, Installation View K3

Photo by Keith Park



Kyungah Ham, *Needling Whisper, Needle Country / SMS Series in Camouflage / Money Never Sleeps C01-01-01*, North Korean hand embroidery, silk threads on cotton, middle man, anxiety, censorship, wooden frame, approx. 1200hrs/ 2persons, 144(h)×145cm, 2014–2015



Kyungah Ham, *SMS Series in Camouflage / Are you lonely, too? 03*, North Korean hand embroidery, silk threads on cotton, middle man, anxiety, censorship, wooden frame, approx. 1800hrs/2persons, 202(h)×199cm, 2014

것을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 대다수 사람은 편견에 지배당하는 거 같다. 작가가 이런 작업을 왜 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러니 너무 쉽게 자신을 믿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우: '청화백자 프로젝트'에 사용된 도자기나 이번 전시의 주요 기법인 자수는 연약한 재료이다.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 이들을 선택하면서 어떤 점을 고려하였는가?**

함: '청화백자 프로젝트'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쓰는 AK 소총, 히틀러가 그린 그림을 재현하면서 그것들이 자본주의 안에서 다르게 이용되는 것, 즉 히틀러 박물관에 전시되고 옥션에서 비싸게 팔리는 현상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인류를 몰살하기 위해 만든 무기산업이 세계경제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결국 모순을 갖고 있고 무기를 팔기 위해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무기를 팔아야 하니까, 폭력에 관한 아이러니를 부질없고 허물어지기 쉬운 도자기를 이용해 앞 뒷면처럼 만든 것이다. 그리고 자수는 정보를 쉽게 접하고 구하는 시대에 그것과 가장 반대되는 노동집약적인 아날로그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여러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 곱씹을 수 있는 매체라고 보았고, 하나의

이야기가 한 픽셀을 구성하고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 한 픽셀이 자수 한 땀으로 변모하면서 그 뒤에 있는 존재들을 드러내고 싶었다. 추상회화는 정치적인 태동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미학적이고 순수한 대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아이러니를 지속해서 재생산한다. 모든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루브르나 대영박물관을 다니면서 "정말 많이도 흠뻑했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보통 사람들에게겐 어릴 때부터 작은 것 하나 흠치지 못하게 하면서 왜 저들은 그렇게 했을까. '유지엄 디스플레이' 작업을 하면서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어 은유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똑같이 흠쳐야 한다. 어떤 재료의 아이덴티티가 있듯이 어떤 작업이 가진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 말했듯 적합한 매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 예술가는 작품으로 사회적 발언을 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작가 함경아와 사회 구성원 함경아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함: 작가로서의 나와 개인으로서의 나 사이에 차이는 없다. 예술가로서의 길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술가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작품이 권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면, 그런 층위를 분명 갖고 있다. 사실 슈퍼마켓에만 가도 정치를

경험한다. 가격표를 포함한 모든 게 계급 체계 안에 존재하기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 나는 철저한 무정부주의를 지향한다. 이런 작업을 정치적으로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보고 거기에 녹아 있는 제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재미를 느낀다. 이면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기에 당연히 의문을 갖게 된다. "앞면이 뒷면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정치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사람처럼 비치지만 큰 관심이 있지는 않다.

**우: 작가 자신도 자수회화 작업이 힘들고 관두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한다. 그런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강박으로 표현했다. 작가가 생각하는 이 작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함: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아팠을 때 두 시간씩 걸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더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느꼈다. 두 나라가 피해 가는 이데올로기 문제에 의해 고통받는 불편함, 이런 구조에서 오는 긴장감 같은 것을 누가 생각하겠는가? 작업 과정 중에 발생하는 검열, 거짓말이 두렵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이 둘 사이에서 오는 충돌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다.

This project takes us back to 2008. The artist decided to send a 'particular' message to North Korea after finding a propaganda leaflet at her front door. In the South information is accessible at the click of a mouse. In order to communicate with the other side of the border, where information is totally blocked, the artist uses a different approach: embroidery. You can presume the reason why it took Kyungah Ham six years to put together her solo exhibition, 'Phantom Footsteps', based on her testimony that it takes a year for the people on the other side of the border to hear the echo of a shout from the north. The long awaited artist returns to us with her imaginary phantom brought to life.

interviewed by **Woo Hyunjung** | courtesy of **Artist** |  
materials provided by **Kukje Gallery**

**Hyunjung Woo(Woo):** The *SMS series* in Kukje Gallery K2 and *What you see is the unseen / Chandeliers for Five Cities* in K3 are in contrast with one another, yet clearly deliver the same theme. Please explain the series in relation to the exhibition title *Phantom Footsteps*.

Kyungah Ham(Ham): The title 'Phantom Footsteps' just popped into my head while I was working on the paintings. When we think about what a phantom is, we think it could be something with invisible feet or something else. In K3, *What you see is the unseen / Chandeliers for Five Cities* takes on a traditional composition by having a chandelier in the middle of a black background. The chandelier implies a vast discourse or falterd ideology. And it also means that the collapse of lives and discourses could be a hallucination or misunderstanding. On the other hand, the *SMS series* in K2 seems like an all-over painting that has a shattered core via juxtaposition and dismantlement. The message that I want to express reaches its arrival point, igniting into a walking phantom. In a way, what makes everything possible is capital, not ideology. Capital grasps these situations and walks away like a ghost. Lastly, what I ponder over is what exists between people in North Korea and I. Although it is intangible, everyone has their own imagination and fantasy. The motivation that keeps the artist working even in realistically limiting conditions is the artist's obsession. This could be becoming a walking phantom.

**Woo:** I believe that to effectively deliver a subject that attempts communication, transcending spatial distance

and the ideology of intangible existence, all unforeseen situations in the working process must be disclosed.

Ham: The chandelier project took a long time to finish. With many different variables while working on many pieces simultaneously, the quality of work sometimes gets diminished. *What you see is the unseen / Chandeliers for Five Cities* has weak links among images. This somehow proves that a number of people worked on the embroidery, but it also shows the choices the artist had to take when you can see the inconsistent patterns. However, most of the inconsistencies were left as they were. In fact, I had little control over the choices. The only changes I made were during points when some workers would bring poor quality work back, selling the string materials provided to them. There was also a case where a worker lost an original image, and worked on a magnified version of the plan drawn on a piece of A4 paper. 'I'm Sorry' came back with a typo 'I'n Sorry' but was displayed at the Busan Biennale. These works sufficiently express intensity

and reality, but museums do not want to keep them. This is unfortunate because the art appreciating public has acquired an advanced taste of art, certain qualities must be met in order for work to be considered art to get a message through. People do not feel anything when a piece that doesn't have qualified conditions is exhibited. Such characteristics might be acceptable in alternative spaces but art museums take these matters seriously.

**Woo:** Do you re-do the job if work is lost due to inspection? I wonder if you are interested in a separate project for keeping track of the working process.

Ham: I do not. At times, skeleton-like images do come back to me, but each case differs. Sometimes text works may be problematic, so I simplify the text. I create an abstract image by making a camouflage. Works like *At First, it is the Dark* met with problem after problem. I expressed a middle man to proceed on a task the workers said was arduous. It was also difficult to pass inspections from Sinuiju. All



Kyungah Ham, *Trophies*, Installation View at Art Sonje Center in 2009, Blue and white porcelain, drawing of traditional landscape, Adolf Hitler's painting, wood, Dimensions variable, 2008

these processes become mediums for art. Although the captions provide partial explanation, you cannot grasp the working process just by looking at the art produced. The artist can utilize a more convenient media such as video recording to document the process, but because each person has different levels of interpretation, it is up to the artist to decide how much explanation is required. While people are intrigued by the work and want to dig into the details, but I personally feel at risk. I hope that people give more attention to how visual literacy changes and the artistic assessment of the work than the process.

**Woo: During the press conference, you said that ‘the embroidery series reveals the difference between connotation and denotation, which exposes an underlying truth and emphasizes the power of ambiguity. The translation of meaning may differ according to eras and perspectives’. What approach does an artist want to avoid the most between redundancy of meaning and translation?**

Ham: Confronted by the unavoidable ambiguity of translation, I try to find the crossing point where they all intersect to create a story that can imply everything. There are connotations, denotations, and implications are formed by the imagination of the spectators. I want to ask them what they think the phantom’s footsteps might be, and they probably have the correct answer. It

is dangerous however to make a judgment based on a certain prejudice without seeing or discussing the work. The general perception would be that people would like unfamiliar things because art is creative work, but the truth is that people enjoy what is familiar. Most people seem to be controlled by bias. It is actually hard to make a judgment if you scrutinize why the artist embarked on a project. That is why I would like to caution hasty confidence.

**Woo: The ceramics used in the *Blue and White Porcelain Project* are weak materials and embroidery for this exhibition is also fragile enough. What did you consider when choosing them as your medium for message delivery?**

Ham: In the *Blue and White Porcelain Project* I wanted to depict the most favoured AK rifle of terrorist groups as well as Hitler’s art work, to talk about how they are used within the framework of capitalism, that is, how Hitler’s work was exhibited in his museum and auctioned out at expensive prices. The weapons industry which was created to drive humanity to annihilation is the largest market in the world economy. People live under this paradox and wage war using political situations to promote weapons sales, because sales sustain the industry itself. The easily breakable ceramics were used at the front and back to represent the futility of the irony of violence. Moreover, I know that embroidery is very labour-intensive, an analogue

method that stands in opposition to the digital information age of we live in. I thought embroidery was a medium that people would appreciate more and more as they take their time. In the digital world where one pixel consists of one story, I wanted to reveal hidden beings behind a pixel which is transformed into a stitch in my works. Abstract painting is still viewed as pure and aesthetic although it actually stemmed from a political agenda. People with such views consistently reproduce such ironies. Everything has two sides. I always thought this while looking at displayed objects at the Louvre or the British Museum, a lot has been ripped off. I wonder how they have stolen so many things. Usually people were taught not to steal. As I worked on *Museum Display*, I thought that writing, photographing and using metaphors are inappropriate. I need to steal alike. As each material has its own identity, it is important to find the right medium to give identity to a project.

**Woo: There is a view that artists should make a social statement through their work. How similar are the artist Kyungah Ham and the citizen Kyungah Ham?**

Ham: The artist me and me as a person are the same because I do not put on a separate artist mindset. People expect artists to be ethical and moral, but that is something relative. If my work appears to imply power conflicts, then maybe there is a certain level of politics embedded. Even in the supermarket you experience politics. Pricing



Kyungah Ham, *Museum Display*, Installation View at Museum Moderner Kunst Stiftung Ludwig Wien in 2010, Stolen objects, brass label, mirror, light, metal, glass, 5×5×2 m, 2000–2010



Photo by Keith Park

Kyungah Ham, Installation View K3

is done within a hierarchical system of class, so there are choices that I cannot make. I pursue utter anarchy. I did not try to imply anything political, but I find pleasure in telling the story about limitations embedded in my surroundings. I always preserve skepticism because there might be something under the surface. If you start to say 'the front is not the back' I might seem to be a person who takes a political approach, but I do not care much for politics.

**Woo:** You say that embroidery is arduous and want to quit from time to time, but obsession keeps you going. What meaning does this work have to you?

**Ham:** When I got sick due to extreme stress, I took two hour long walks. One day, it occurred to me that this work might have more value than I had thought. I might be doing something great. Who would actually think about the inconvenient pain of ideological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tension rendered by this structure? I fear the lies and inspections that I encounter during the project. It is physically fatiguing because of the clash between the obsession and the danger.

함경아는 서울대학교에서 회화과를 졸업한 후 뉴욕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SVA)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개인전에는 1999년 갤러리 루프 <풍경이 있는 방>, 2008년 쌈지 스페이스 <어떤 게임>, 2009년 아트선재센터 <욕망과 마취>가 있다. 주목할 만한 그룹전은 런던의 대영박물관(2005), 비엔나의 빈 루드비히 현대미술재단(2010), 과천 국립현대미술관(2013), 독일 본의 쿤스트뮤제움 본, 그리고 쿤스트할레 뒤셀도르프(2014)를 들 수 있다.

**Kyungah Ham** was born in Seoul in 1966. Her work has been exhibited in solo shows including 'Room with a View', Gallery Loop, Seoul (1999), 'Such Game', Ssamzie Space, Seoul (2008), and 'Desire and Anesthesia', Artsonje Center, Seoul (2009). She has participated in selected group shows held at the British Museum, London (2005), the Musee Palais de Tokyo, Paris (2010), Stiftung Ludwig Wien, Vienna (2010),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traveled to Kunstmuseum Bonn, 2013), and Kunsthalle Dusseldorf (2014).